

4» 국제캠 총학생회장 연임



8» 열리지 않는 전학대회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수강신청기간 : 2016.12.14(수) 10:30 ~ 12.15(목)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2016.12.16(금) ~ 12.20(화) 16:00
등록방법 : 본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박근혜 퇴진·성역없는 수사 촉구”

양캠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캠 퍼스(서울캠)는 정문에서, 국제캠 퍼스(국제캠)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캠퍼스가 모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jtbc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며 ‘최순실 게이트’라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례없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각종 의혹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거세지자,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대학에서 시국선언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사태의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학생들의 연대서명, 시국선언문을 시행하며 동참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달 26일 질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 28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립해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격려하는 입장표명문을 밝혔다.

양캠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국제캠 늦은 공지는 아쉬워

본격적인 시국선언에 앞서 양 캠퍼스 총학은 시국선언에 동참할 학내 개인 또는 단체 연명을 함께 받았다.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연명을 받았으며, 28일 정문에서 시국선언 참가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캠 총학도 공식 페이스북에서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캠과 동일한 연명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캠 총학은 지난달 31일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시국선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공식 비대위를 조직했다. 조중연(산업경영공학 2011)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 촉구에 더 많은 학생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마감된 연명은 총 44개 단체와 1,809명이 참여로 마무리되며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목

소리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1일 서울캠 총학은 정문에서, 국제캠 총학은 중앙도서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경희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캠 시국선언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여러분들은 역사의 격동한 가운데 있다. 풍랑 속에서는 방향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규(행정학 2016) 군은 “더 이상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부모님과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딸과 후배가 되자”고 발언했다.
교수·학생 자유발언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
학생과 교직원의 자유발언 이후에는 약 600명(경찰추산 400명)의 인원이 정문을 출발해 청량리 광장까지 약 2km 구간을 30여 분 간 행진했다. 행사 이후 서울캠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은 “피켓을 400장 준비했는데 그 이상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박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제캠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고수빈(컴퓨터공학 2016) 양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권력과 부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또 다른 자유발언자 허지윤(연극영화학 2015) 양은 “대통령의 무능력함이 곧 국민의 무능력함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무능력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했다. 비대위 이유진(국제학 2015) 부위원장은 “진정한 애국이란 대통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권, 정부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함께 행동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을 향해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가버려 여간 것이 아니냐”며 시국선언을 앞두고 회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또한 자유발언자로 나선 이현지(스페인어학 2016) 양은 지난 달 28일 비대위가 SNS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6명의 비대위 구성원 중 시국 선언에 절반도 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번 사태와 운동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Newsmaker

팟캐스트 ‘책이랑 토크’ DJ
김세욱(연극영화학 2011)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DJ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독서토론 팟캐스트 ‘책이랑 토크’은 책 한권을 읽고 다양한 주제를 토론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DJ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2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이들의 방송은 청취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애청자를 늘려가고 있다. 6명의 DJ 중 ‘고래’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욱(연극영화학 2011) 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군은 어릴 적 라디오를 즐겨 듣는 ‘라디오 키드’였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는 라디오에 사연을 제보했다. 김 군은 “라디오 진행자 내 사연을 읽으면 굳이 많은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거리가 공유되는 데서 안정감을 느꼈다. 결국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말하고 들으며 ‘소통’하는 일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됐다.
라디오 DJ가 될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주로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들이 라디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라디오 DJ가 아니라도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서 청취자들과 소통하기로 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김 군은 친구 3명과 모여 단기적으로 고민상담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학기가 시작되고 그만두게 됐다. 그러다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서 ‘책이랑 토크’의 새로운 DJ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김 군은 “팟캐스트와 독서토론 모두 흥미가 있던 분야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책이랑 토크’를 5개월간 진행하며 ‘채식주의자’와 같은 소설에서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같은 정치·사회분야 저작까지 다방면의 책을 소화하며 생각의 깊이도 깊어졌다. 또한 꾸준히 책을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날이 성장해가는 기분도 느끼게 됐다. 김 군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책이랑 토크’를 통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진지한 주제이지만 무겁지 않게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학생 신분이라 학업과 방송을 병행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김 군은 “시험 기간에 700쪽 정도 분량의 책을 500페이지까지만 읽고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방송을 완벽히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과 청취자들의 반응은 그에게 원동력이 된다. 김 군은 “친구들이 방송에 대해 이야기 해주거나 방송에서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고 말할 때 뿌듯하다”며 “청취자 분들도 정성스럽게 감상평과 응원 말씀을 남겨주면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고민상담부터 독서토론 팟캐스트까지 진행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도 생겼다. 김군은 “어렸을 적 라디오에 보냈던 사연을 읽어줬던 DJ처럼 나도 팟캐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이나 행복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은 “사람들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시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과 행복을 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대학이 나서야 독도를 지킨다

고창근(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 7면



시선

사설

유례없는 사건,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길

국제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회장직을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학칙 상 위법 사항은 아니 라지만 애초에 그 학칙이 회장직 연임과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는 느슨한 규정임이 드러나 면서, 제도적 위법성 여부보다는 개인적 진정성과 제 도보완의 필요성 차원으로 논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총학생회장직과 그 임기 에 대한 김병경 전 회장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제 48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당초 내걸었던 공 약 중 많은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뽑아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 이나 양해의 과정보도 없이 재선을 위해 현 회장직을 중 도에 포기하는 행위가 과연 유권자에게 신뢰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은 차기 총학 선거를 주관하 게 될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 장이 김 전 회장의 러닝메이트였던 현 부총학생회장인 라는 점이다. 현재의 권력이 차기 권력을 선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뜰이나 문제점 으로 지적되어오던 이 구조가, 올해에 중선관위 위원 장과 특정 후보가 개인적·정치적 사적 관계로 엮이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공정성 논란에 직면 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올바르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헌회 의의 사례를 경유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현대 대통 령제를 탄생시킨 178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는 대통령의 임기와 재임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대통 령의 독립성과 책임정치의 실현여부와 맞물린 사안으 로 파악했다. 그들은 만일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게 될 경우 재임이 불허된다면 유능한 인물이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 고 될 유능한 인물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될 것을 우려 했다. 또 만일 대통령을 입법부가 선출하게 될 경우 재 임이 허용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는 현재 권력의 유지 를 위해 공모할 수 있으리라 우려했다. 55인의 제헌회 의 대표들은 이러한 고민 끝에 대통령이 무능한 경우 를 대비해 임기를 짧게 하는 한편 유능한 경우에는 지 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임을 허용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제의 기틀을 완성했다.

이를 현재 국제캠퍼스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결국 상 당한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 개선이 요구되고 있 는 상태임이 드러난다. 먼저, 별도의 연임규정이 마련 돼 있지 않은 현재의 학칙으로는 현 총학 회장의 연임 시도 시 필연적인 업무공백을 수반하게 만든다. 때문 에 현행 학칙에 대한 세밀하고 정치(精緻)한 제도적 보 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현재 권력이 차기 권 력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행 중선관위 시스템은 유권자에게 현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중선관위와 특 정 후보가 공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중 선관위를 일반학생 등 총학 집행부 외부에서 초빙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모 학과 교수 성폭력 의혹 수업은 그만둔 상태

미디어 여론동향 2016.10.17 ~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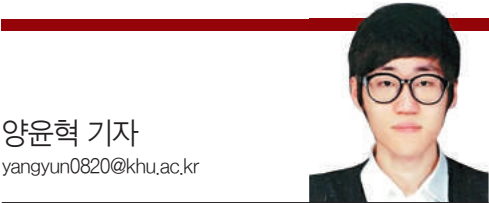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우리대학 모 교수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아왔다는 피해자의 글이 SNS에 게재됐다. **〈1보〉교 내 교수 성추문 논란/대학주보 온라인, 2016.10.26**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의 처제로, “28년 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고, B교수의 학위논문을 대 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교수는 SNS를 통해 설명 으로 반박 글을 올린 상황이다. A씨는 B교수를 유사강 간 및 폭행, 학대, 강도 등에 의한 현금 갈취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다. B교수는 해당 사건 언론유포에 대해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 우리학 교 감사행정원은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B



이 주의 주제 - 총학생회장 사퇴

어제의 회장이 오늘의 후보자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정치권에서 재선을 위해 임기 중에 직위를 버리 는 경우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작 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 되던 시기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 항간에선 김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예 측이 나온 바도 있다. 대표가 물러난 집단에는 혼 란이 불가피하다.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 던 김병경 회장이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퇴 서를 올리고 돌연 사퇴했다. 학생 커뮤니티에서 는 김 회장이 차후 선거본부에 참여하는 것인지, 직접 재출마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 됐다. 의문은 바로 다음 날 풀렸다. 김 전 회장은 Re:action 선거본부의 총학 회장 후보자로 등록 했고, 학생 사이에선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임기와 후보자 등록 기간이 겹쳐 김 전 회장은 임기의 약 6분의 1 가량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총학생회장이 연임을 시도한 경우는 우리학교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 장의 임기와 지위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연임 또 는 사퇴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행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후 선거과정에 대해 일각에선 의심이 일고 있 기도 하다. 하루 만에 총학생회장에서 후보자 신 분이 된 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선거에서 중선관위원장을 맡는 이는 48대 총학에서 김 전 회장과 일했던 박수지 부회장이자. 하지만 김 전 회 장의 사퇴 이후 회장 업무를 박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선관위장을 맡는 것도 회칙에 부합한다. 역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처음으로 총학회장으로 도전했던 지 난해 선거 당시, 모호한 선거체적으로 인해 공과 대학 제1투표소, 국제경영대학 투표소 무효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선관위의 장을 맡은 47대 총학 김용석 전 회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 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인수인계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 혔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병경 전 회장은 사퇴 전까지 선거체칙 개정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불거졌던 선거시행세칙 문제와 현 김 후보자가 일으킨 파문은 회칙의 허점이다. 회칙 상의 개정을 통해 중임·단임 여부를 명시하 도록 하고, 이를 넘어 연임 시 후보자와 중선관위 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시스 템의 보완 없이는 중선관위와 김 후보자 간의 의 혹은 계속될 수 있다.

‘진정성’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지 2주가 지나간다. 무수히 많은 대학과, 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국 선언을 진행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하루 수 많은 언론을 통해 뉴스가 나올 때 마다 국민들은 분노 를 넘어 더 큰 자괴감에 빠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 양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한 곳 으로 모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후 박 대통령의 녹화사와 영상과 국 민대담화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동 정과 연민으로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수많은 언론사의 의혹제기와 비판에도 불구 하고 현 상황을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부정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과 영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보 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 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진솔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나왔다면 이 의혹 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순 ‘일 부 언론’이라고 한정시켜 버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논란을 덮을만 한 큰 이슈를 또 다시 들고 올 것이란 것을. 박 대통 령은 JTBC의 의혹 제기 후 곧 바로 개헌이라는 논의 를 들고 온 것과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강제 집 행이라는 것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 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돌려 지지 않자 강제 집행은 유족과 합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처럼 덮여졌고, 개헌이라는 논의는 곧 바로 사그라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 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굶을 했 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현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대역을 썼다’, ‘곰탕을 먹은 적이 없다’, ‘악마는 프라 다를 읽는다’라는 의혹과 농담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 르렀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이 부끄러 움을 무릎 쓰고 지금에서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 다는 점이 감사할 정도이다. 이번의 사태는 박 대통령 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지금,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이뤄져온 모든 부조 리를 반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때이다. 또 다시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시기다. 이번에도 비선실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국민들은 개, 돼지이기 때문에’ 이 번에도 그냥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드디어 국민의 뜨 거운 맛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또 다 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 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레7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취업 시 출석 인정’ 세척개정으로 조기취업자 구제방안 마련돼

‘취업계’ 부정청탁 문제

권유진 기자 hahayj23@khu.ac.kr

지난 4일,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정됐다.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받을 뻔한 조기 취업자들의 졸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한 대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기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주던 이른바 ‘취업계’ 관행이 학점 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9월 26일 조기 취업자의 학점 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학칙에 따르면, 6주 이상 결석하면 낙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중순 안에 각 대학 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기 취업자들에게는 무조건 F가 부과돼 졸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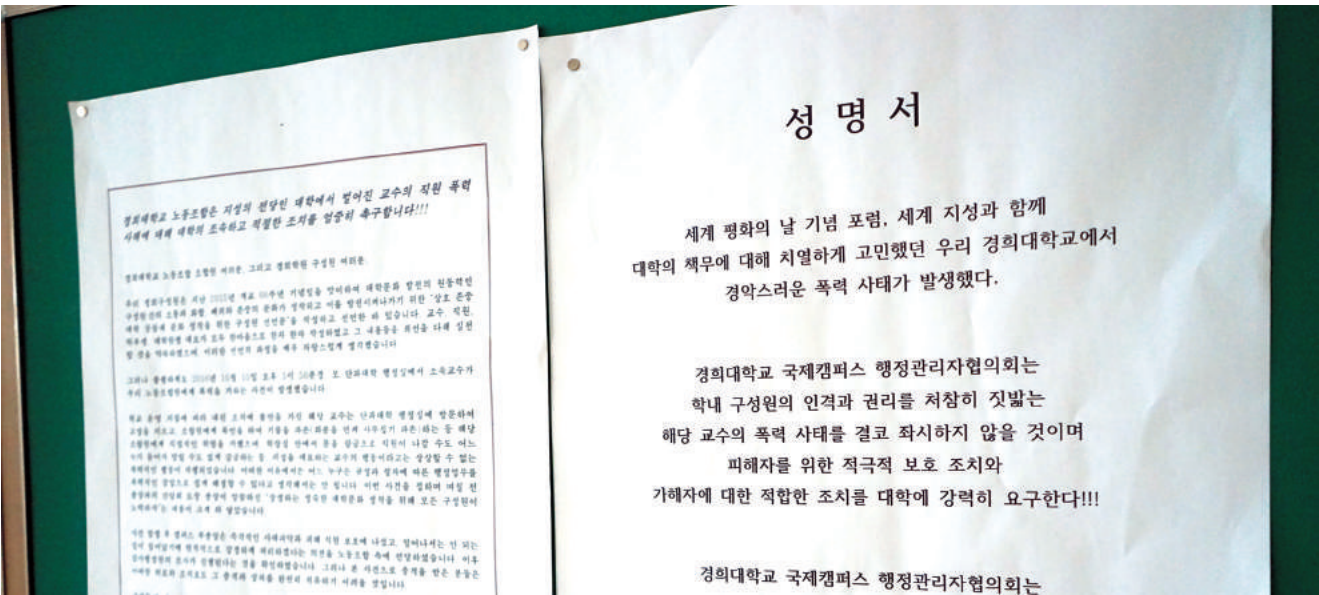
우리학교 교무처와 학사지원과는 취업

계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에 특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19일, 교무처는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12조 1항 8번에 근거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정됐다. 즉, 출석 인정에서 결석계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세척 적용 대상자는 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취업한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세척의 적용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수강신청 확인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서가 필요하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만 가능하다.

취업진로처 측은 “취업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세칙이 제정되어 다행이다. 학생들이 걱정 없이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척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를 기준으로,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 취업한 4학년 학생 중 한 명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마음 졸이던 날들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는 소감을 전했다.

세척 제정으로 취업계를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겠지만, 수강 신청이나 학점 정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학교 측의 확실한 대안이나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노조와 국제캠퍼스 행정관리자협의회는 이번 폭력 사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생명과학대학 교수 직원에게 폭언 공사중단 불만… 감사원 조사 중

국제캠 직원 폭행 사건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지난 달 13일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지성인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진 교수의 직원 폭력사태에 대해 대학의 조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10월 10일 모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소속 교수가 노동조합원(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캠 행정관리자 협의회도 18일 “해당 교수의 폭력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대학에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오후 3시 50분 경 자신의 실험실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해당 교수는 생명과학대학(생대) 행정실 직원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실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생대 학장실로 들어오게 하여 일방적인 폭언을 계속했다고 한다. 또한 화분을 책상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거기에는 해당 실험실 연구진 그리고 생대 행정실 직원과 타 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소란이 커지자 통합방범상황실인 삼성에스원의 직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현장에 갔던 상황실 직원은 “교수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니 행정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며 “상황이 종결될 상태여서 자세히는 모르나 학장실의 화분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생대 행정실측은 “피해자인 교직원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행정실 측에서도 사건에 관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해당 교수는 “연구진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실에서 계속 협조하지 않는 이유 대해서 물어본 것 뿐이다”고 말했다.

교수는 당일 상황에 대해서 “다만 말을 나누다 보니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고 행정실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기에 학장실로 들어가서 얘기했다” 또한 “화가 나서 화분을 들었다 내렸는데 깨진 것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학장실 문을 잠갔다”고 말하면서도 “성명서에 적힌 내용은 과장이다”며 교직원에게 폭력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동서의과대학에 위치한 교수 실험실의 흥보게시판 공사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실험실 연구진은 사업평가결과 중 ‘흥보게시판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이행

하기 위해 생대 행정실에 공사에 대한 협조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대 행정실과 동서의과대학 행정실 그리고 관리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해당 실험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8일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날 동서의과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시험이 있었고 소음을 이유로 생대 행정실에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해당 교수가 공사 중단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호(원자력공학) 국제부총장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는 상담 체계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감사행정원에 사건의 경위와 학교규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부탁하여 조사 중이다”고 했다. 감사행정원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며 11월 중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피해자인 교직원에게 전문기관과 연결하여 심리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전기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분야 및 인원

과정	모집인원	학과	전공명	학위명
석사과정	113명	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병원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과	노인·케어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전공	시민사회(NGO)학석사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기간	2016.10.31.(월)~11.18(금)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기간	2016.10.31.(월)~11.18(금)	청운관 6층 공공대학원 행정실
전형일(면접)	2016.11.26(토) 14:00	청운관
합격자발표	2016.12. 9(금) 14:00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등록	2016.12. 9(금)~16(금)	하나은행 가성계좌로 입금

● 강의

- 매주 화요일/수요일 아간
- 다양한 장학혜택
 -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Tel. 02-961-9240~1
 - Email pnc@khu.ac.kr
 - 홈페이지 http://pnc.khu.ac.kr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2017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분야	인원
국제통상협력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협력학과	석사 00명 / 박사 00명

● 지원 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

● 전형일정

구분	기간
인터넷 접수	2016.10.17.(월) ~ 2016.11.10.(목) 24:00
지원 서류 제출	2016.10.17.(월) ~ 2016.11.14.(월)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2016.11.26.(토) ※시간 개별 통보
해외 거주자 인터뷰	2016.11.21.(월) ~ 2016.11.25.(금) ※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16.12.5.(월)

●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후 지원 서류 제출
- ※ 자세한 내용은 국제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sp.khu.ac.kr)

● 서류 제출

- 우편접수 : [17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제출' 기재 要]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 학사조교 근무자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가계 곤란자 대상 수업료 일부 지원
- 기숙사 입사자 전원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 문의

- Tel : 031-201-2146~9
- E-mail : gsp@khu.ac.kr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제42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 강 연

- 이택광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전공 교수

● 주 제

- '우리 안의 지도 그리기 :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 일 시

- 2016. 11. 17. (목) 오후 3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사창각실

● 강사 주요 저서

- 인상파 파리를 그리다 /이택광 지음, 아트북스, 2011
- 마녀 프레임 /이택광 지음, 자율과요요, 2013
- 고흐와 고갱의 유토피아 /이택광 지음, 아트북스, 2014
- 불가능의 예술 /바슬라프 하벨 지음, 이택광 옮김,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강연 후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본 강연은 자기 안에 자리 잡은 욕망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응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부름에 종속되어 있고자 하지만, 사실상 그런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그 깨달음에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가능할 것이다. — 강연 요약

● 문의

-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T.02-961-0074,0078 khsd3015@khu.ac.kr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총학 선거 공정성 개인의지보다 제도로 보장받아야

국제 중선관위 공정성 도마 위에

00000000 기자 0000000000@khu.ac.kr

국제캠퍼스 49대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에 직진호가 켜졌다. 제48대 김병경 총학 회장이 재출마를 위해 회장직을 중도 사퇴함에 따라, 본래 그가 맡아야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장직을 총학 박수지 부회장이 맡게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정선거를 이끌어야 할 중선관위 위원장인 박 부회장과 후보자로 나선 김 전 회장이 서로 러닝메이트 관계였다는 점에 있다.

그간 국제캠 중선관위는 ▲선거기간에 갖는 권한이 과대하고 ▲총학생회 집행부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는 구조인 데다 ▲회의록 공시도 미진한 통에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속하게 받아왔다. 총학 박인 전 회장(46대), 김용석 전 회장(47대) 등 많은 이들이 중선관위원장 직위를 내려놓은 이후 ‘총학과 독립된 중선관위 구성’, ‘선거시행세칙 재정비’ 등 선거제도 쇄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임 총학회장으로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김 전 회장이 선거제도 결함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후보자로 재출마 한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선관위는 선거진행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투표연장기간을 임의로 늘려 투표율을 조정하거나, 징계결정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조직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캠 총학생회 선거에선 중선관위 과실로 인해 밀봉되지 않은 투표함이 발견되거나 선거인명부가 사라지는 등 선거시행세칙이 규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 역설적으로 중선관위가 선거결과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선거시행세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에 관한 결정은 모두 중선관위가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김병경 '후보'와 박수지 '중선관위장'이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성 논란을 겪는 배경이 된다.

물론 김병경 전 회장은 박수지 부회장이 이끄는 중선관위의 권한남용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우리신문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모든 총학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총학 단체대신자를 나오는 등 객관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선

관위는 중립적 단체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중선관위와 후보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국제캠프 중선관위 구성은 당해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큰 제도적 결함을 안고 있다. 지난해 48대 총학생회장 선거당시 KHU&KHU 선거운동본부 운동원으로 활동한 A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해야 할 중선관위가 후보자와 일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작년에 일어났던 중선관위의 직권남용 사례를 제보해왔다.

지난해 치뤄진 48대 총학 선거 중 공과대학 제1투표함의 종이 선거인명부 일부가 유실되고, 국제경영대학 인터넷 선거인명부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 이에 당시 중산관위는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해 공과대학 제1투표소와 국제경영대학 투표소에서 집표된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았다. 선거시행세칙 5조 3항은 '종이 선거인명부와 인터넷 선거인명부 상의 투표원 사이의 오차율이 3% 이상일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선거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척대로라면 투표함이 무효처리 된 공과대학 제1투표소와 국제경영대학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했지만, 당시 중선관위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해당 투표함을 단순 무효처리한 채 투표율을 집계했다. 그러나 집계결과 투표율은 49.37%에 머물렀고, 50% 투표율을 달성 못한 이 선거는 무효화 됐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중선관위는 개표장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곤, 무효 처리된 공과대학 제1투표소와 국제경영대학 인터넷 투표자 명부에 기재된 투표자 수를 투표율(전체 투표자 수/전체유권자 수) 산식의 전체 투표자 수에 가산했다. 당시 중선관위 김용석 위원장은 “전례-----” 이 “전례” 덕분에 투표율은 50%를 넘어섰고, 선거가 성사됐다.

48대 중선관위는 미개표 된 투표함에 집표된 표수를 투표율 계산에는 포함시킨 반면, 찬성률(찬성자 수/전체투표자 수) 산식의 전체투표자 수에는 가산하지 않았다. 만약 찬성률 계산에서도 미개표 수를 투표자 수로 고려했다면 찬성률은 64.12%로, 단선 시 당선조건인 66% 찬성률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국제법 제48대 총학 선거에서 당시 중선관위는 낙선을 뒤집는 결정을 최소 두 차례 '임의'로 내렸고, 투표율과 찬성을 계산에 각각 서로 다른 전체투표자 수가 사용되는 속에 48대 총학이 수립된 것이다.

000

선거의 결과를 뒤바꾸는 중요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찬성을 계산에 대한 중선관위의 판단은 개표장에서조차 일체 공고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심지어 이때 진행된 ‘중선관위 회의’는 개표과정 중에 이뤄져 회의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중선관위는 구조적으로 지극히 폐쇄된 조직체계를 지닌다. 중선관위실은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이며, 정기 회의록은 단지 홍보물부착 가이드라인이나 롤미팅 진행여부 등을 기록하는 데 그쳐 구성원이 상세한 내부 의결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

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정경대학 학생회 선거의 사례처럼, 설사 선관위가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투표 연장기간을 늘리자’는 의결을 내치기로 통과시킨다고 한 들 이 사실을 선관위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알 수 없다.

이 정경대학의 사례에서는 지나치게 긴 선거기간을 미심쩍게 여긴 한 학생이 선관위에 의결과정을 요구한 덕분에 그 진상이 드러났는데, 국제캠 중선관위에서는 이런 절차도 무용해진다. 국제캠 중선관위는 정경대학의 사례처럼 학생들이 의결과정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대상**
2004 ~ 2007학번 재학생 중, 급학기 현재 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가. '대학영어'
나.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과학논증작성법'
다.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문제지 및 자료

가. 대학영어 이수 문제지 및 자료

- 1) 공인영어시험능력자료 개발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2)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3)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별입학자
- 4)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이수자
- 5) 국제교류허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문제지 기준표]

면제종류	계 열	내 학	면 제 기 준						면제내용
			TOEFL		TEPS	TOEIC	G-TELP		
			CBT	IBT					
공인시험 시험결과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 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 Level2 이상	과목면제 ※ 실시일 기준 한자 표기 2년 이내 검출이 한함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 응용물리학 응용화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 Level2 이상		
		공과대학 실용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화학)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 Level2 이상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 Level3 이상

연계 종류	자 격	연계 내용
국제화센터 간접 연계	국제화센터 YOFI, YOBIC 간접 입학자	과목 연계
특성 입학자 (영아권)	영아권 국제 외국권 또는 영아권 교과서자, 영아권 재학국민	과목 연계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화센터가 인정하는 · 자학 중 어학의 학점 교류가 인정 이수자로 선발한 자 외국 영아권이나 과정을 이수하고 · 성실 학습을 하였던 자에 한함 · 4학년 1학기 학점 인정 가능 영어 학업(수화)과목(대학 부설 및 공인 교육기관 Program)에서 45%(4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후 2교 수업을 취득한 자	과목 연계
	영어성취도 (TOEFL 국제교류점 (LEAP, REACH) 중점 프로그램) 과목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 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 연계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국어를 면제한다.(신청 기간에 제출)
 ※ 공학인정(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외국어대학은 학과별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자신의 재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12단계를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 1 단계	제 2 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상기 과목으로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료와 표현 영역 어휘 명제기준 및 지격

1) 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이수면제 제출표]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한 점	비고
1단계	목우갈 평가 (원강에서 종 3분을 읽고 목우갈 제출)	목우갈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 / 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글쓰기 시험 (교재 내용을 이백도 평가 / 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2. 전산평가기능 추가배치 기준 및 자치: 전산평가기능의 경우 주요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4. **신항기장**: 2016.12(목) ~ 2016.12(수)간 17:00 까지

5. **신항장소**: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신항자 유익사항**
가. 2016학년도 1학기 현재 상기와목을 수강 및 이수한자는 신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정보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써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다. 신항자격이 있더라도 본 이수면제를 신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031-201-3401~5

가. 신청서 1부 (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증빙서류 원본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 공고

2017년 2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 원서를 제출하고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오니 해당자는 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교과과장이나유재직자 선별되어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2017년 2월에 졸업예정인 학생
2	접수기간	2016년 11월 1일(화) ~ 11월 11일(금)
3	접수 및 문의처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멀티미디어관 507호 / (031) 201-3401
4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취취수임강원정원(세)소정강원정원 - 양식수령: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비치 - 교직원직무전공과공통과학 연계전공 포함은 무수임강원정원을 전공별로 각각 제출
5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자격취취수임강원정원을 미제출한 경우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 재학 중 주인증번호 또는 성명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 교원자격 취취수임강원정 원서 제출자 대상 인적사항 검사 시행예정(별도 개별 통보)

▶ **한화연도 졸업시험 통과 및 학위취득자**
 - 2008학년도 이전 한화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전공교과(전필, 전선 42학점)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148점 이상 포함
 전공교과 20학점 이상(교과이수14학점) 교과교과 4학점, 교육실습2학점 이상
 전공과정 및 교과과정 이수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별도시험 인적성검사 직접면접 1회 이상
 별도시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1회 이상
 2008학년도 이후 한화지(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전공교과(전필, 전선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148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과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교과 22학점 이상(교과이수 14학점, 교과응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 이상)
 전공과정 및 교과과정 이수 성적이 평균 75점 이상
 별도시험 인적성검사 직접면접 1회 이상
 별도시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1회 이상
 2013학년도 이후 한화지(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전공교과(전필, 전선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148학점 이상 포함, 교과교과 8학점 이상 포함
 전공교과 22학점 이상(교과이수 14학점, 교과응양4학점, 교육실습4학점 이상)
 전공과정 및 수성석 평균 75점 이상, 교과과정 이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별도시험 인적성검사 직접면접 1회 이상
 별도시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 1회 이상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보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 TF, ‘사과’ 벽에 막혀 제자리

- 대안1. 유명무실 시간강사규정 개정 통해 ‘학기 제한’ 폐지
- 대안2. 연속 학기 위촉 강사에게 와이파이, 중앙도서관 이용 허용
- 대안3. 전체 대학 평균 수준의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후마니타스칼리지 시간강사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 우리신문은 올해 2월, 작년 12월 24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시간강사 45명이 '교과과정 개편을 이유로 강의 비개설을 알리는 미 위촉 통 메일을 받았으며, 교과과정 개편에 시간강사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올해 5월에는 전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후마니타스 교육자협의회(교협)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TF운영을 하자는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해촉 통지 사건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의 발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해촉 통지를 받은 45명 중 한 명인 채호정 시간강사는 청운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강의실 밖 수업)를 열고 있으며, 12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5월에 제시된 TF는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곧 논란의 '해촉' 통지 발단이 일어난지 1년이 된다. 우리신문은 후마 유정환 학장과, 채호정 시간강사를 각각 만나 상이한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양 측의 입장은 후마 측의 TF구성 논의 조건인 '강의 미위촉에 대해 근거 없는 부당한 정보를 언론사에 투고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할 것'부터 상이하다. 유 학장은 이번 인터뷰를 포함한 모든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언론사에 투고했으므로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 전까지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강사는 "공개 사과는 노동 탄압이며 대학에서 있을 수 있으며 할 수 없는 요구다"라며 "부당한 정보를 언론에서 보도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반론권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채 강사가 올해 5월, 9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학교 측의 부당해고'에 관해 구제신청을 하며 계속 이어졌다. 2번의 노동위의 핵심은 '시간강사규정' 이었다.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제 3조에는 ▲1항.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항.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이며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이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우리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으로 2학기 이상 재학한 채 강사는 2항 조건에 해당돼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제 7조에 있다. 7조 1항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단위로 하되'라고 밝히고 있고, 2항에는 '연속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항에도 불구하고 3항은 '박사학위 소지자, 타 대학 전임교원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결재를 득하면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채 강사는 7조 3항과 같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아직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박사 수료 상태'이다. 결국 후마 측은 7조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채 강사에게 4학기를 초과하여 수업을 배당함으로써 스스로 규정을 어긴 셈이 되어버렸다. 채 강사는 "당시 중노위를 준비하며 4, 8학기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며 "하지만 학교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이미 많은 시간강사들이 4학기를 초과해 강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채 강사는 "이 조항은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조항이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게 강의를 맡겼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학장은 "엄밀히 따지면 나와 전임 학장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관례상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노위·중노위에서는 채 강사가 제기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채 강사는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판결이 아니다"라며 "부당 해고라는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정환 학장은 TF운영을 위해 채호정 시간강사의 공개사과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호정 시간강사는 공개사과는 결국엔 후마에 굴복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난 5월 교협에서 제시한 TF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양 측의 입장이 아직까지 상이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경우 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보도에서 <관련기사 : 1603호 3면>, <관련기사 : 1607호 7면> 대학본부 측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함을 강조해왔다. 채 강사 또한 "여기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되면 결국엔 굴복하게 되는 것이 되고 앞으로 일하게 될 시간강사에게 이러한 관행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듯이 이번

논란은 채 강사 한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2016년 2학기 기준 우리학교의 871명 시간강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간 유 학장은 이번 인터뷰를 포함한 지난 인터뷰에서도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유 학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모든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TF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본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 강사와의 갈등이 아닌 더 많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미 당사자인 유 학장 또

한 공감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이다. 제10조(해촉)에선 '시간강사는 강의하는 학기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채 강사는 "2학기 기준 11월 말 혹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통보를 해줘야 다음 학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통보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강사들은 다음 학기 위촉 여부를 알 수 없는 채 강의 종료 전 학교 측에 문의를 하고, 타 대학의 시간강사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제3조(4학기 규정), 제7조(8학기 규정)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채 강사의 사례와 같이 이미 후마 측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의 직종으로 분류,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돼 사실상 4학기 이상 고용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별도로 초과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기존 시간강사에게 적용하던 4학기, 8학기로 제한하던 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번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학기 종료와 동시에 중지되는 교내 와이파이 이용,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것이다. 규정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 단위로 하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시간강사 중 다음 학기 강의를 위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하계·동계 방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교내 중앙도서관을 이용해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 혹은 교내 와이파이조차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전체 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교내 시간강사 강의료(대학알리미 공식자료 기준 2016년도 우리학교 : 50,721원, 전체대학 평균 : 55,000원), 강의 준비 공간 부족 등이 있다.

이메일 '해촉'통보가 이뤄진지 곧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결국 양 측의 상이한 입장만 다시 확인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는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학기 TF 요구를 받아들여 처우 개선에 힘썼다면 당장 이번 2학기 시간강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월 둘째 주(11.07~11.1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 · 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비 고
KB금융권 설명회	11.07(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청년취업이카데미 마케팅리서치과정 설명회	11.08(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중견기업 히든챔피언 설명회	11.09(수) 14:00~16:00	청운관 B117호	
이랜드 외식사업 채용설명회	11.09(수)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국내외 항공사 채용설명회	11.09(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해와제업과 대우의 Global Y&M(번영목)	11.7(월) 11:30~13:30	청운관 B117호	취업특강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입장 가능)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신청 후 '참석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사전 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 함.
◆ 출석 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상담유형	일 시	컨설턴트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월요일 ~ 금요일 (전문 컨설턴트)	이연의 오신중 박언경	오바스홀 354호,356호 제법학관 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메뉴에서 신청
		홍상기	청운관 6번 상담실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신청자 의무 : 취업준비도 성과(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 후 각 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취소 불가(상담 당일 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3. 모의면접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면접관 : 이연의 오신중, 박언경, 홍상기 컨설턴트(각 컨설턴트별 1회 1진행)

분 류	일 시	면접관	장 소	신청방법
모의 면접	11.09(수) 16:00~18:00	박언경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메뉴에서 신청

4. 중견기업 히든챔피언 바로 알기 설명회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 일시 및 장소 : 11.09(수) 14:00~16:00 / 청운관 B117호

◆ 상세내용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취업진로지원처 전화 문의(02-961-0167~8)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6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 · 서류 제출 기한
2016.12.01(목) ~ 12.09(금) 17:00까지

2. 접수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연수 신청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의 내용 작성 및 신청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후 서류 제출(청운관 208호)

3. 면제기준 및 자격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의 2016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참고

4. 유의사항
가. 2016~2학기 현재 해당과목을 수강중인 자, 학점포기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하지 아니함
다. 신청자각이 있더라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04~2010학년도 2016~2학기 재학생

2. 이수면제과목
가.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글쓰기 (2004~2010학번 해당)
나.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대학영어 (2004~2007학번 해당) 또는 English Reading & Discussion (2008~2010학번 해당)
다.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전공영어 (2004~2007학번 해당)
라. 기초교양구 핵심교양 전산영역 (2004~2007학번 해당)

〈기초필수 영어1, 영어2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11~2015학년도 2016~2학기 재학생

2. 이수면제과목
가. 영어1
나. 영어2

〈기초필수 대학영어 이수면제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16학년도 2016~2학기 재학생

2. 이수면제과목
가. 대학영어

※ 문의 :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02)961-9311, 9339, 9340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회 선거 공고

총학생회칙 17절 선거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16년의 교수직원 사원들을 평가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를 기 위해 2017년을 준비하는 학생회를 선출하기 위한 시기가 왔습니다. 대학교 3주제로서 학원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어나갈 학생회의 선거를 하려 합니다.

■ 선거일정

- 2016.11.01. ~ 2016.11.07.	후보추천 및 등록기간
- 2016.11.08. ~ 2016.11.20.	선거운동기간
- 2016.11.21. ~ 2016.11.22.	단과대학 및 중앙동대리연합회 투표 기간
- 2016.11.23. ~ 2016.11.23.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투표 기간

■ 입후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입선개표는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의결으로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쳐야하며, 특별대표기구장(중앙동대리연합회)과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본회의 의결으로 2학기 이상의 등록을 마쳐야한다.

나. 총학생회는 5개 이상 단과대학 학생의 1/10이상 및 추천을 받은 전체 학생의 1/10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특별대표기구와 단과대학은 해당 회원 1/10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등록할 자

1. 입후보 등록일치 1부.

2. 선거운동차량 1부.

3. 공명선거서약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참 투후보 등록한 자간 각 2명(이제는 등록부 등록용서에 부착)

6. 후보 포스터용 사진(아니 포스터 연례용 파일(파일 제출시 포스터 확인용 A3 출력용 포함)

가. 포스터 당해물 파일명 제출 시에 상관하여 정한 규격(JPG, AI, PDF, HWP등)의 인쇄용 곡면영어아·학미 포스터 연례용·파일의 미제출시는 포스터용 사진을 이용해 기본 포스터로 후보 포스터를 제작한다.

7. 해당 선거구 회원의 추천서

8. 자치회비 납입증명서 1부(단, 학교에서 증명서 발급을 안할 경우 본 항목의 효력은 정지한다.

9. 당대 후보의 등록은 해당 선거위원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선관리위원의 검토를 기본절차로 한다.

(자세한 선거시행서 중학생회 커리 http://cafe.naver.com/khu2015/838 참고)

■ 선거 시행 방법 및 선거권자 수 (공고일 기준)

총학생회	: 11,016	총학생회장	: 11,016
중앙동대리연합회	: 174	공과대학	: 2,926
동생과대학	: 6	경영과대학	: 827
응원과대학	: 666	전자정보대학	: 1,402
국제경영대학	: 2	국제대학	: 643
예술디자인대학	: 1,636	외국어대학	: 1,501
체육대학	: 1,405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학이 나서야 독도를 지킨다

전문가 칼럼

고창근
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이 전 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문부와학성을 중심으로 펼치는 학생 대상의 다케시마 정신교육, 독도를 탈환 대상으로 명시한 방위청 방위백서 발간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펼치는 일본령 다케시마 홍보 및 국제재판소 제소를 통한 독도의 분쟁지역화 획책 등 조직적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중의원의 일본령 다케시마 영유권결의, 장기적 독도탈환을 염두에 둔 일본총리의 노골적 다케시마 교육 강화 지시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총력전에 대비해 우리는 정부뿐 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독도영유권에 대한 걱정이나 수호 활동은 학생이나 시민단체 등 민초들이 앞장서 고군분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본에 전방위적 다케시마 교육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력 부족

이제는 대학이 독도주권교육을 통해 나설 차례다. 약 3백만 조직구성원을 보유한 국내 대학은 지적 인프라, 재정능력, 그리고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에 관해 논리적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학생들이 왜곡된 역사, 왜곡된 다케시마 교육을 배우고 자란 일본의 차세대들과 당당히 맞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독도문제에 대해 국가의 예산투입이 없이도 일본을 이길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시도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의지 여



하에 따라 산발적,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초.중.고 대상 독도교육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전 방위적 다케시마 교육에 대항할 수 없다.

고종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칙령을 발동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서로 편입 확정하고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05년 2월22일, 일본제국주의는 무주지 선점이라는 명분을 세워 독도를 일본령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란 이름으로 편입해 버렸다. 이때 그들이 기록한 ‘Takeshima’란 이름은 1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공공 기관 및 각종 출판물의 80%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적 독도침탈 전략에 대비하는 대학의 소명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 없이 독도수호의지 양성고 일본이 전 세계의 공공기관 및 각종 출판물에 기록해 놓은 Takeshima란 표기를 우리의 Dokdo로 교정하기 위한 실천 작업이다. 출판물의 표기를 고치기 위해 출판계의 큰 고객 중 하나인 대학이 나서서, 대학의 브랜드와 권위로 전 세계의 학계, 언론계, 출판계를 상대로 장기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해외 유학생들도 소속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 중 Takeshima 표기에 대해 대학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당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로 교정된 서적을 반입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회적인 이벤트성 독도 캠페인보다는 독도표기확산과 뿌리내리기 작업이 급선무다. 일본은 다양한 루트로 ‘Takeshima’ 명칭의 변경을 경계하고 관리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 분쟁화 되었을 때 Takeshima 표기점유 상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주목하여, 필자가 몸담고 있는 독도아카데미는 2006년 창립 이래 국내대학 도서관은 물론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UCLA, MIT 등 유수의 대학도서관과 보스턴, 뉴욕 등 공공도서관에서의 Takeshima 표기 상태를 직접검색하고 눈으로 확인하여 그 실태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린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독도 아카데미 교수진들이 참석해 일방적 Sea of Japan 표기결의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역시 당시 내외신 언론을 장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문제를 이산화하고 선도할 수 있어도 의제를 꾸준히 유지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옮기기에 재정과 인력이 매우 빈약하다.

독도아카데미가 10여 년간 국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배출한 “독

도아카데미” 수료생들은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예산의 제약과 비영리 시민단체가 갖는 태생적 한계성 때문이다. 반면 국내 대학생은 약 3백만 명에 달한다.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이제 10년간 지속해 온 독도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뜻있는 대학, 의식 있는 대학과 손잡고 독도교육의 커리큘럼화, 공론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또는 선택과목으로 대학당국이 채택 할 수 있게 본 단체가 소유한 모든 교육적 자산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에서 ‘독도 주권 교육’ 필요

우리는 대학캠퍼스에 새로운 독도교육의 바람이 불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한제국의 멸망과정과 일본의 독도침탈과정, 독도의 전략적 가치,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 일본은 왜 독도를 노리는가?, 일본의 독도침탈 6단계 전략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독도는 대한독립의 상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엔 미래가없다.” 선각자들의 경구를 되새기며 우리 경희대 학우들의 독도사랑, 독도교육운동이 온 대학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참여마당

김윤모
(국어국문학 2016)



살을 에는 추위 일지라도 작은 온기에 감사 하길

영하로 뚫고 한없이 내려가는 겨울의 냉기는 나를 괴롭게 한다. 숨만 쉬어도 내 몸 안의 숨결을 액화해버리는, 따뜻한 숨을 이내 차가운 입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겨울이 얄밉다. 고요한 주변에 온 세상에 나만 있는 듯, 침전하는 분위기의 눈이라도 오는 날은 너무 좋지만 이내 곧 찬 바람이, 아니 ‘칼바람’이 내 온 얼굴을 긁고 지나간다. 피부 속 세포까지 찢어 버릴 것 같은 그 찬기가 너무 싫다.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 코와 귀는 점점 빨갛게 변하고 코에서 자꾸만 흐르는 콧물은 내가 콧물인지 콧물이 나인지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혼을 쏙 빼놓는다. 눈알까지 차가워진 채 냉동실의 동태가 이런 기분일까 하는 심정으로 겨우 현관문을 연다. 그 순간, 따스한 공기가 나를 온몸으로 반겨준다. 그 온기는 안경의 김 서림으로 가시화되고, 온기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극대화 된다.

김 서림은 나에게 감사 그 자체이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약 13도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하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고 한다. 불과 몇 초 전 바깥의 나와 집에 들어온 내 온도 차이가 무려 13도 이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방금 전의 나보다 13도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안경에 서린 김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이슬 하나하나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길 때 내 행복감도 극대화 된다.

온기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 온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감쌌던 것이고, 동생을, 집 안의 화초를, 우리 집 금붕어를 품어주고 내 방의 다육이까지 따뜻하게 안아준 다음에야 비로소 나에게 온 것이다.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온기는 온전히 나만의 온기가 아니다.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가끔 찬바람이 심한 너무 추운 날, 거리를 걷다 잠시 바람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가곤 한다. 정류장의 칸막이에 의지하여 임시방편으로 바람을 피해보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는다. 그곳에서 있으면 추위를 피할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되새기곤 한다. 현관문만 열고 들어서면 온기가 맞아주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한다.

지금 내 현실과 이 세상이 살을 에는 추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한기를 녹여줄 온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막상 온기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한기에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추위가 어디서 왔든 어느 정도로 춥든 한파가 찾아온 이상 내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온기를 찾아내어야 한다.

“주변의 것에 감사하세요.”

너무나도 뻔한 말이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내 가슴과 내 머리에 새기며 내 걸음 걸음을 뒤돌아보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꿈 꿔 일어붙은 땅도 서서히 녹이는 힘이 아닐까 싶다. 춥다고 웅크리지만 말고 주위의 것에 집중하여 작은 소중함을 찾아보자. 그러면 내가 내쉬던 한숨에는 어느덧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것이다. 내가 내쉬는 숨이 나를 녹여줄 온기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1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보도

최근 5년간 전학대회 성사 단 3번뿐 ... 누구의 책임인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류제원 기자 jennyoo95@khu.ac.kr

【서울】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총학생회(총학)에서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을 해도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혹은 참석했다라도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이다.

총학 회칙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려야 했던 10회의 전학대회 중 실제 안건 의결까지 진행된 것은 3회뿐이다. 소집이 이뤄졌던 7번 중 2번은 재적인원의 50%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회조차 되지 않았다. 정족수를 충족해 개회할 수 있었던 5번 중 2번은 회의 도중 대표자들이 자리에서 이탈해 안건의 심의·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우리학교 학생회 대의기구
전학대회, 학운위, 중운위

전학대회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우리학교의 대의기구다. 전학대회는 총학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학의 활동방향성과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확운위는 총학의 의결, 운영기구로, 총학의 활동방향성과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심의해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중운위는 총학의 최고운영기구로서 제반 사업을 검토·조정·심의해 학운위, 전학대회,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즉, 중운위와 확운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학대회의 하위기구다. 성원 역시 전학대회가 가장 많으며 이어 확운위, 중운위 순이다. 따라서 각 기구가 갖는 대표성의 정도도, 다뤄야 할 안건의 중요성도 모두 다르다.

그동안 총학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전학대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도중 이탈로 표결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임시전학대회로 전환해 안건보고만 진행하거나 안건을 확운위, 중운위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에 위임했다. 지난 2015년 1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개회 후 참석자들의 이탈로 표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임의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143/157) 하위 의사결정 기구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했



다. 해당 안건은 확운위로 위임됐다. 2015년 2학기 전학대회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임시전학대회로 전환된 바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도 못 채워 열리지 못해

이처럼 전학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전학대회에서 다뤄지기로 예정된 안건을 다른 의사결정기구에 위임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학칙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서울캠 총학 회칙 제 12장 제 3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회칙 제 6장 제 33조 확대운영위원회의 조항 역시 5항 8호에서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그 방식은 언급돼 있지 않다.

또한 임시전학대회에 대해 회칙 제 32조 7항 2호는 '임시전학대회는 의장 또는 재적인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기전학대회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정기전학대회를 임시전학대회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그간 임시전학대회는 정기전학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출석한 대표자들에게 보고안건을 전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체 되어왔다. 2012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의 전학대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총학생회에서는 전학대회 성원 미달 시 '관례대로' 임시전학대회로 진행하거나 확운위에 의결을 위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례적인 임시 전학대회 대체 '주먹구구식' 진행으로 비판 대상

실제로 이번 학기 전학대회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관례에 따라 임시전학대회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석자 중 김종휘(통번역학 2011) 군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건을 보고하나"라며 "총학은 그동안 회칙에도 없는데 보고안건을 진행해왔냐"고 항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총학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전학대회에서 정족수를 못 채운 경우가 4번이나 되므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군은 "그동안 전학대회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관례대로 처리해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히 하위기구에 의사결정 업무를 위임할 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학대회가 수년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례'라는 명목 하에 처리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안건을 확운위에 위임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고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전학대회를 여는 것도 그들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자행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일이 '관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칙이 필요하다. 회칙은 총학이 임의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 전학대회 출석률 50%채 되지 않아

전학대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총학의 임의로 임시전학대회로 진행하거나 하

위 의사결정기구에 안건을 넘기는 것 못지 않게 대표자들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대표해 총학의 업무를 감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전학대회 출석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4일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3학년 대표는 "전학대회 모집 공지를 하루 전에 받아 다 행사와 겹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의명을 요구한 과의 부학생회장장은 "암묵적으로 3·4학년 대표는 전학대회에 안 가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은 그동안 수차례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표자들의 문제를 언급해왔다. 지난 2009년, 그간 성원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전학대회가 3년 만에 열린 것을 지적한 데 이어(서울캠 3년 만의 전학대회 ... 열린 질의 오가/대학주보 온라인, 2009.4.3) 이듬해인 2010년 1학기 또다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학대회 '불발', 대표자 책임감 부재에 불만 제기돼/대학주보 온라인, 2010.4.30) 뿐만 아니라 2013년(전학대회, 총여 비대위 인준 부결 중도 이탈로 주요 안건 의결 못해/대학주보 온라인, 2013.4.7), 2015년(회의 중 성원 이탈... 자치회비 분배 의결 못한 '전학대회'/대학주보 온라인, 2015.4.3)엔 대표자들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탈해 심의·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하면서 확운위에 위임하는 행태에 대해 권위와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전학대회 성원 부족은 우리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다.

"총학생회 - 전학대회 상호 견제와 균형 이뤄야"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총학생회가 행정부라면 전학대회는 일종의 국회이고 두 기구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7학년도 총학을 결정하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단 한 번도 전학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현 총학에게, 그리고 차기 총학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본부에게도 전학대회 성원 문제는 중요하다. 전학대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창구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16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7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 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 2016년 9월 30일(금)~11월 8일(화) 17:00
- **대 상** : 교수, 교직원, 개인 및 단체
- **시상분야** :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 충분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3. E-mail : pr@khu.ac.kr
- **선정절차** :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식** : 2016년 12월 중 (Magnolia 2016-1부 목련회의)시 시상
- **문 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실